
자주하는 질문(FAQ)

-원숭이두창 관련-

2022. 8. 11.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I	질병(원숭이두창)의 특성	1
II	역학적 특성	2
	1. 발생 국가	2
	2. 감염 및 전파경로	4
III	진단검사	7
IV	격리 및 접촉자 관리	10
V	예방 및 치료	12
VI	의심환자 대응	15

Q1. 원숭이두창은 어떤 질병인가요?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Q2.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었을 때 주요증상은 무엇인가요?

-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허리통증, 무기력감, 림프절병증(비대, 염증 등)이 있습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발열 후 1~3일 이내 시작하며 얼굴, 손바닥, 발바닥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간혹 입, 생식기 또는 안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진 등 임상증상은 약 2~4주 지속될 수 있습니다.

Q3. 치명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

- WHO에 따르면 최근에는 3~6%로 보고되었으나, 아프리카를 제외한 2022년 비풍토병 발생국가의 치명률은 이보다 낮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 2022년 8월 10일 기준 비풍토병 발생국가의 확진자 31,088명 중 사망자는 6명

Q4.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어도 안심할 수 있나요?

-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2~4주 후 완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대증적인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다만, 특정 인구집단(면역저하자, 소아,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에서 합병증(이차세균 감염, 피부 손상, 심한 위염, 설사, 탈수, 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하는 등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폐렴,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이나 뇌(뇌염) 또는 눈에 감염(각막염, 각막 궤양 등)이 일어난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II

역학적 특성

1

발생 국가

Q1.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으로 알려진 국가는 어디인가요?

-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2022년 5월 이전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 가나 : 동물에서만 확인

* 베냉, 남수단 : 유입사례만 확인

*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시에라리온

Q2. 최근 원숭이두창 주요 발생국가는 어디인가요?

- 2022년 5월 7일, 영국에서 1건의 원숭이두창 유입사례(나이지리아) 보고 이후 유럽, 북미,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22.8.10일 이후 신규 환자 발생국 기준)*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총 74개국, 8.10일 기준)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체코, 필란드, 몰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안도라, 조지아, 튀르키예, 러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키프로스, 몬테네그로, 리투아니아, 미국, 브라질, 캐나다, 페루,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파나마, 바베이도스, 과테말라,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태국, 대만, 필리핀,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수단

Q3. 아프리카에 발생하던 감염병이 갑자기 왜 세계 곳곳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나요?

- 현재 발생 국가별 첫 유입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생국가별 정확한 유입경로가 확인되면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까지 짧은 기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한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국내 유입 사례가 있나요?

- 2022년 8월 10일,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유입사례는 1건입니다.

Q5. 현재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에 대해 크게 우려할 상황인가요?

- 원숭이두창에 대한 충분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국외 발생 양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6.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시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을 할까요?

- 국외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원숭이두창은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19와는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Q1. 원숭이두창의 전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증상 감염환자와 밀접 접촉 시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코로나19처럼 단순 접촉으로 감염되는 정도는 아니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도 가능하나 흔하지 않습니다.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 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태반을 통한 수직감염과 성행위 감염 가능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된 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가 가능하나, 흔치 않음

Q2. 원숭이두창은 동물-사람간 전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감염된 동물(설치류, 영장류 등), 사체(육류 또는 혈액 포함)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합니다.

Q3. 원숭이두창은 사람-사람간 전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람은 유증상 기간(보통 2~4주) 동안 전파력이 있습니다.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성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Q4. 원숭이두창은 임산부-태아/신생아 간 감염이 가능한가요?

- 감염된 임산부의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며, 분만 중 산모와의 초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신생아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Q5. 잠복기가 5~21일이라고 하는데, 무증상 기간동안 감염이 가능한가요?

- 무증상 기간 중 전파가능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6. 의사환자가 원숭이두창 진단검사결과 음성이어도 잠복기 동안 격리를 해야 하나요?

- 의심환자로 신고된 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원숭이두창 관련 격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Q7.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고위험 접촉자는 최초 노출일로부터 21일간 격리가 권고되고 있으며, 고·중위험 접촉자의 경우 능동감시를 수행하며, 저위험 접촉자는 감시 없이 주의사항 안내를 시행합니다.

위험도	원칙	관리방식
고위험	보호구 미착용 직접 접촉 또는 고위험 환경 노출	① 모니터링 기간 : 21일 ② 자가격리 : 권고 - 고위험집단과 생활 하는 직업군**은 근무제한 권고 ③ 방식 : 능동감시 ④ 노출 후 예방접종 : 가능
중위험	보호구 미착용, 감염성물질, 비말 노출 또는 잠재적 에어로졸 노출	① 모니터링 기간 : 21일 ② 격리 : 무 - 고위험집단과 생활 하는 직업군**은 근무제한 권고 ③ 방식 : 능동감시 ④ 노출 후 예방접종 : 가능
저위험	보호구 착용 후 신체 또는 비말 노출	① 모니터링 기간 : 무
	신체 접촉없 고 비말 노출 가능성 거의 없음	② 격리 : 무 ③ 방식 : 주의사항 안내

* 면역저하자, 임신부,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와 생활하는 직업군

Q8. 원숭이두창이 호흡기 전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과의 직간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 다만,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특정 임상적 환경(삽관·발관, 수술·시술 등 처치)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9. 원숭이두창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에게 권고되는 준수사항이 있나요?

-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등 점막 부위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발진 등 의심환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삼가하고, 의심 증상이자 사용한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을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고유종인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로부터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병변을 긴 옷 등으로 감싸 노출을 최소화, 침구 및 식기 등 별도 사용, 공간 분리 등)
-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1.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현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Q2. 일반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인을 위한 검사방법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방식은 유전자검출검사로 검사실에서 검체 접수 후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Q3.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은 어떤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가 진행되나요?

- 원숭이두창에 사용되는 검체는 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과 혈액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의료기관 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시 검사의뢰 및 검체는 어떻게 이송하나요?

- 우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사례조사 후 시도에서 의사환자로 분류할 경우, 시도에서 배정한 1인실 격리입원 병상으로 이송*하여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보건소에서 검사기관(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이송합니다.

* 단, 신고의료기관에서 관리조치(1인실 격리입원 및 검체 채취 등)가 가능할 경우 이송하지 않음

Q5.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종류 어떻게 되나요?

-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는 유전자검출검사법(Real-time PCR)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Q6. 잠복기에 진단검사를 하면 원숭이두창 감염 확인이 가능한가요?

- 원숭이두창은 감염병 특성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감염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7. 의료기관에서의 검체 채취 방법이 궁금합니다.

- 원숭이두창 검체종류는 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과 혈액 등이 있습니다.
- 피부병변이 있는 시기에는 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혈액을 채취하며, 이 중 피부병변 검체는 필수검체에 해당됩니다.
 - 채취방법은 환부 2곳 및 주변을 소독, 건조 후 드라이 스왑으로 채취하며 각각의 스왑을 각각 개별 무균용기 또는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수집합니다.
 - 또한, 가피는 환부 2곳 및 주변을 소독, 건조 후 26G 주사침 등을 이용하여 탈피하고 채취하여 VTM 또는 무균용기에 수집합니다.
- 피부병변이 없는 전구기에는 구인두도말 및 혈액 등을 채취합니다. 구인두도말은 전구기 환자 구인두에서 VTM에 도말물 1개를 채취하고, 혈액은 EDTA가 처리된 튜브에 5 ml 이상 채취합니다.

Q8.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시 보호장비 착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 검체 채취 시 보호장비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권고하는 개인보호구는 개인보호구 4종으로 호흡기 보호를 위해 일회용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눈 보호를 위해 고글, 전신 보호를 위해 일회용 장갑 및 방수성 긴팔가운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9. 원숭이두창 검체 용기 별도 지원 여부 및 허용되는 검체용기 범위가 궁금합니다.

- 원숭이두창 검체 용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판되는 VTM 또는 무균용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해당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에 해당되며,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라 검체 포장 방법을 준수하시어 3중 포장 용기에 검체를 포장하시면 됩니다.

Q10. 원숭이두창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나요?

- 원숭이두창 검사는 질병관리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Q11. 해외여행력 없이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검사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이 원숭이두창을 의심하여 관할보건소로 신고를 할 경우, 기초 역학조사 후 의사환자로 판단된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2. 해외여행 중 원숭이두창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과 접촉력이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검사가 가능한가요?

- 입국 시 관련 내용을 건강상태질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시고, 검역관에게 알릴 수 있으며, 기초역학조사 후 검역소의 판단에 따라 의사환자에 해당할 경우 1인실 격리병상으로 이송 후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가 가능합니다.

IV

격리 및 접촉자 관리

Q1.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감염원 증상, 개인보호구 착용, 체류시간, 체류 장소 환경에 따라 접촉자를 분류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군 : 개인보호구 미착용, 직접 접촉 또는 고위험 환경 노출
중위험군 : 보호구 미착용, 감염성물질, 비말 노출 또는 잠재적 에어로졸 노출
저위험군 : 보호구 착용 후 신체 또는 비말 노출, 신체 접촉 없고 비말노출 가능성 거의 없음

Q2. 의사환자가 원숭이두창 진단검사결과 음성이어도 잠복기 동안 격리를 해야 하나요?

- 의심환자로 신고된 경우, 원숭이두창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원숭이두창 관련 격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후 2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기간동안 증상 모니터링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로 재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Q3. 항공기 내 원숭이두창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항공기 내 확진환자의 전후좌우, 대각선 1개 좌석 승객을 21일 동안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1개 좌석 이상 3열 이내 승객은 21일 동안 수동감시를 실시합니다.

Q4.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입니다. 검사를 받을 있나요?

-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였어도 원숭이두창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검사 대상자가 아니며,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위험도에 따라 격리, 능동감시 또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Q5.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자가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입국 전 21일 이내 증상이 있었으나, 입국 당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증상 없음”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모든 해외입국자는 의심증상 여부 등에 대한 검역관의 검역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Q1. 원숭이두창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사람·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 ④ 원숭이두창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Q2. 원숭이두창에 대한 예방 백신이 있나요?

- 3세대 두창 백신은 두창과 원숭이 두창 모두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FDA(미국)와 EMA(유럽)에서는 두창과 원숭이 두창 백신으로 3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 3세대 두창 백신은 약독화 비복제 백신이나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병원성이 거의 없으며,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지만 유전자 변형을 통해 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부작용을 줄였습니다.

Q3.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해외여행 예정자 등)?

- 원숭이 두창 백신 예방접종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제한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 * 확진자와의 접촉 강도가 중위험 이상인 밀접접촉자와 확진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의료진을 의미함
- 현재 일반 국민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에서도 일반인이 아닌 고위험군 중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4. 원숭이두창 확진자 관련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포위접종을 계획하고 있나요?

- ☐ 포위접종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질병 확산을 막는 전략입니다.
- ☐ 원숭이두창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전략으로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예방접종을 시행할 고위험군은 확진자와의 접촉 강도가 중위험 이상인 밀접접촉자와 확진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예방접종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게 되나요?

- ☐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은 확진된 환자와 접촉을 통해 노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강도가 중위험 이상인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
- ☐ 접종시기는 마지막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접종하며, 접촉 후 4일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접촉자로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접종할 계획이며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 ☐ 접종장소는 시·도 지정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백신은 3세대 백신이고, 지정 보건소 예방접종 인력이 피하주사로 접종하게 됩니다(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

Q6. 원숭이두창에 대한 치료제가 있나요?

- ☐ 대부분 경증으로 대증치료만으로 자연 회복되며, 필요시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를 시행합니다.

Q7. 원숭이두창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 대부분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2~4주 후 완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증적인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생아, 어린이 그리고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의료진은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도를 고려하여, 치료제를 투여하여 기대되는 임상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Q8.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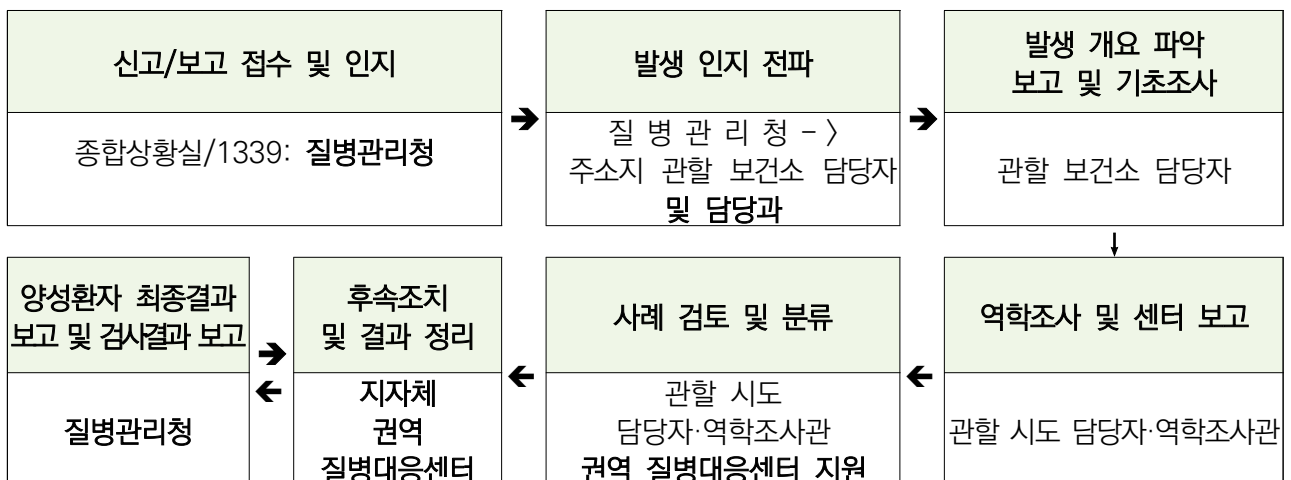
-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대한감염학회와 협력하여 「원숭이두창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Q1.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을 1339로 개인이 문의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나요?









- 1339에서 의심사례를 접수하였을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의심사례를 전파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응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담당과에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 가급적 1339에서 선(先) 안내 조치, 필요시 담당과에서 추가 답변 등 지원

○ 대응체계



○ 원숭이두창 및 다른 발진 질환과의 비교

	원숭이두창 (Monkeypox)	수두 (Varicella)	대상포진 (Herpes zoster)	단순포진 (Herpes simplex)	홍역 (Measles)
발진 사진	  <p>* 미국 CDC</p>	 	 	 	 
발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부터 시작해서 전신 팔다리 쪽으로 진행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 발진 •대부분 같은 단계의 발진 •손 발바닥 침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를 포함하여 주로 몸통 쪽으로 진행 •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 •발진마다 단계가 다를 수 있음 •손 발바닥 침범 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 전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경절을 따라 띠 형태로 나타남 •국소적인 부위에 나타나는 수포성 병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소적으로 피부, 점막 (눈, 입술 등) 모두 침범 가능 •주로 입술 구각 인두, 음부 쪽 발생 •수포, 궤양 동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붉은 반구진성 발진 •얼굴~귀뒤 이후 몸통 중앙 쪽으로 진행 •탈피 가능
임상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두통+근육통부터 시작 •고열 가능 •발열 1~4일 이후에 발진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통+근육통부터 시작 •보통은 미열 (38.8도 미만) •발열 0~2일 이후에 발진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음 (감각신경 침범) •운동신경 침범의 경우 마비 동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변 부위 통증, 가려움증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기침+결막염 •이런 전구증상 수일 발생 후 발진 발생
림프절 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목, 겨드랑이, 서혜부 •단단한 압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물